

“현정부 실정 구경만 했나”

4·11 총선 핫이슈 (1)호남 물갈이론

민주당이 19대 총선 후보를 심사할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심위가 구성된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이 호남 물갈이론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현역의원 싫지만 뽑을 후보도 없어” ‘그 나물에 그 밥’ 안되도록 공천기준 세워야

6일 민주당 당내에 따르면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제가 어제 (당외부 공심위원회 회의에) 배석을 해서 두 시간 말씀을 들어본 결과 (호남 물갈이 정도) 상당히 매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서) 호남에 깃발만 꼽으면 된다는 그런 말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그 대목에 대해선 공심위원들도 다들 수긍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 의견에 손을 들어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전남의 경우 2명의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지만 광주는 8명의 현역 의원 모두가 지역구 수성에 나선 것도 의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들이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당내외의 평가도 더욱 가혹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재고해야 할 것은 지역민들의 ‘물갈이론’에 대한 배경이다. 광주·전남민들이 대대적 물갈이에 뜻을 모으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이 현역 의원들로 전이됐기 때문이지 이들 외에 다른 뛰어난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조성환 (28·두암동) 씨는 “오는 총선에서 누굴 뽑겠다가 아니라 누굴 뽑지 않겠다가 솔직한 심정이다”면서 “지역민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해질 때까지 현역의원들이 해낸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일 뿐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후보는 현재까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용철 (39·금호동) 씨도 “물갈이론이 일차 예비후보들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떠돌고 있는데 과연 스스로가 현역보다 더 나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쇠신을 외친다고 해서 주민들이 선택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 운전사를 하는 김재근 (54·신가동) 씨 역시 “(오는 총선에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비슷한 사람들이 싸우면 아예 민주당을 뽑지 않겠다”면서 “현역의원도 싫지만 물갈이론을 타고 올라서 ‘갑’이 안되는 후보들이 설치는 것도 보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도 “지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밥에 그 나물’이 안 되도록 공천기준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세워야 된다는 안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icepoem@kjdaily.com



도의회 방문한 일본 사가현 의회

일본 사가현과의 우호교류약정 체결 1주년을 맞아 전남도를 방문한 이시이 히데오 의장과 의원,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6일 전남도의회의(의정아호관)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양국 지역 교류협력 등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4·11 총선 프리즘

배드민턴 치며 표심 잡아요

예비후보들 밤마다 학교 체육관 찾아가 지지 호소

4·11 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행동 반경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각 선거구마다 아침 출근인사와 지역구 방문은 기본이고 달밤에 배드민턴 치는 후보자들이 계속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광주지역 각 예비후보자들이 따르면 최근 선거활동에서 꼭 빼놓지 않는 곳이 생활체육 동호인 방문이다. 그러나 조기축구회를 제외한 평일에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퇴근후 즐길 수 있는 운동인

배드민턴 동호회 방문이 출마자들의 주된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남구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는 지난 2일 저녁 일정에 남구관내 배드민턴 클럽 방문이 있었다. 당초에는 주민과 접촉 정도의 행사였으나 운동복까지 다 챙겨입은 장 의원이 원래 의도와 달리 시험에 어울리면서 보좌관들은 당황했다.

장 의원은 공직에서 근무할 때 종종 테니스를 쳐와 테니스 실력은 뛰어난 편이나 배드민턴 실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점프

를 하거나 달릴 때 발목을 다치기도 한다면 향후 선거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좌관들의 얼굴이 시험내내 파랗게 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행히도 일찍 마무리 돼 보좌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보좌관들의 마음을 주민들이 눈치챘을까. 이날 배드민턴 동호회 방문은 편한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이와는 달리 아예 운동을 못하는 예비후보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방문이 곤욕이다.

북구의 모 예비후보의 경우 관내 배드민턴 동호회를 방문하면

서 뺄뚱(?)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4코트로 구성된 실내체육관은 벌리는 대관 시간이 있어 시간 내 보다 많은 회원들이 배드민턴을 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총선 예비후보가 왔다고 해서 누구하나 크게 반기는 사람도 없고 시험하느라 열중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예비후보는 각 코트별로 경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악수 한번 하고 또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예비후보 관계자는 “이런걸 알았으면 평상시에 후보님에게 배드민턴 연습이라도 시킬 걸 그랬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만나야 하는데 전략을 잘 짜서 연습이 끝날즈음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icepoem@kjdaily.com

민주 공천심사 착수...9-11일 후보공모

민주당은 6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심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철규 위원장 주재로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천 심사 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심위는 오는 9-11일 후보자 공모를 거쳐 13일부

터 공천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니다”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되어 시대정신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특히 ▲젊은이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 ▲99% 서민의 아픔을 정책과 제

도로 해결할 방안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를 3대 공통질문으로 정했으며, 답변 내용을 면접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전체 245개 지역구의 최대 30% (74개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15% (37개 지역)에는 여성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 학교시설 건축비용 공개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소요되는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사업비와 사업비에 준하는 유지관리비용을 건축물 완공 때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현에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icepoem@kjdaily.com

민주 국민경선 조직력 관건

선거인 동원 현역에 유리...신인엔 장벽될 듯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공천혁명과 흥행몰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가 가능한 국민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하면서 예비후보들의 조직 동원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총선 후보자 선정 시 국민경선을 하기로 하고,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천후보자 선출 관련 당규와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15일부터 29일

까지다. 전국적으로 동시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마감 전에 경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선일 전 7일까지 마감한다.

선거인단 자격은 4월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모바일투표 선거인이 되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져야 한다.

다만 선거인 수(數)가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면 동원경선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론 조사를 30% 반영하고, 경선 후보들이 합의하면 100%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조직력을 감안하면 선거인단이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 100% 국민경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느 예비후보가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느냐가 경선판도

를 좌우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경선이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년간 조직을 장악해온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 물갈이와 쇄신은 물건너 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예비후보는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할 지역민들이 많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모집된 선거인단을 투표하게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결국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경선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대호온돌침대 건강침대

▶ 장 소 :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

▶ 문 의 : 062)360-1902 / 011-279-8870



DHQ7499 황토흙·온돌방식(5조)



DHQ9309 황토흙·온돌방식



DH707 칠보약석·온돌소파(5조)



DHQ747 에쉬원목

하준의「동의보감」에서 두무냉통(頭無冷痛), 복무온통(腹無溫痛)이라하여, “머리는 차야 붕이 없고, 배는 따뜻해야 병이 없다”라는 이론에 근거해 사용자의 건강을 도모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온돌침대 구입은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426
본사 소비자 상담실: 031)768-3259